

경기일보

2016년 05월 27일 (금)
03면 종합

분단현장 보고 절경 즐기고... DMZ 자전거투어 인기



DMZ
평화누리길 재발견

툄 두 바퀴로 연정을 달리다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로도 즐길 수 있다. 경기도가 평화누리길을 국내·외에 알리고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례·특별 행사로 DMZ 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다.

평소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민통선 지역인 비무장 지대(DMZ)를 자전거로 맘껏 달릴 수 있는 이 행사는 동호회, 라이더는 물론 가족 동반도 가능해 주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운영실적을 보면 첫째에는 1천206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2천227명, 2012년 3천17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까지 90차례에 걸쳐 정례·특별행사로 진행한 자전거 투어 참여 인원은 1만8천명을 육박한다. 투어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3, 4, 5, 9, 10월)

파주 임진각·연천 일대서
6년간 90여차례 행사 열려
참가인원만 1만8천명 육박

경기-강원 올해 첫 연정사업
'투르 드 디엠지' 투어는 백미

에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회당 300명 이내로 진행된다.

파주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코스는 임진각 통문~통일대교 남문~군내삼거리~통일대교 북문~64통문~임진각통문~임진각 자전거 안내소를 돌아오는 17.2km이다. 분단의 현장을 달리며 민족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연천 자전거 투어는 임진물

새롬랜드에서 출발해 임진교~임진교~진상리~북삼교~두루미테마파크~군남댐을 돌아오는 14km의 코스이다. 임진강변 위 독방 길을 따라 달릴 수 있어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강변의 자연 생태 등 수려한 경관은 덩이다.

김용국씨(54·부천시 소사구)는 "평소에 방문하기도 힘든 비무장 지대를 자전거로 달리며 임진강의 비경도 맘껏 보고 즐길 수 있어 기쁘지만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투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DMZ 자전거투어를 정례화로 5차례 실시하고 특별 행사로 파주 4차례, 연천 2차례, 김포 1차례씩 추진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연정 결과인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페어리드'는 자전거 투어의 백미.

비경쟁 페어리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민통선을 포함 62km를 라이딩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천지역에서 열린 뒤 올해로 4회를 맞는다.

경기-강원도는 지난해 DMZ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이 행사를 2회째 공동 개최하고 있다. 또 도는 장단반도 지역과 평화누리길 주변지역으로 자전거 투어 코스를 확대하고 가족, 단체 참가를 늘려 임진각 대표 레저스포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길을 설치하는 한편, 연천과 강원도 철원을 연결한 자전거 투어를 넘어 김포에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동-서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병집 도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자전거 페어리드 등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22.7 X 12.7 cm

충부일보

2016년 05월 27일 (금)
01면 종합

'태후' 촬영지 파주 캠프그리브스 안보관광지 지정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한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관광지로 지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지난주 육군 1사단으로부터 캠프 그리브스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면서 "안보관광지로 지정되면 캠프 그리브스를 더 쉽게 방문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 안쪽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는 안보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2~3일 전 사전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육군 1사단에 캠프 그리브스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1사단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시설물과 CCTV를 설치하고, 작전지역 경계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안보관광지 지정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관광지로 지정되면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민북지역 안보관광 코스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조윤성기자

17.0 X 5.8 cm

캠프그리브스, 관광코스 된다

미군부대 '안보관광지' 지정
태양의 후에 촬영지로 인기
軍, 안전준수 등 조건부 동의
기존 체류형서 당일여행 가능

드라마 '태양의 후에' 촬영지로 유명한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관광지로 지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지난주 육군 1사단으로부터 캠프 그리브스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면서 "안보관광지로 지정되면 캠프 그리브스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 안쪽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는 안보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2-3일 전 사전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다. 또 1박2일, 2박3일의 체류형 관광만 할 수 있고 당일 관광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육군 1사단에 캠프 그리브스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1사단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시설물과 CCTV를 설치하고, 작전지역 경계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안보관광지 지정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관광지로 지정되면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민북지역 안보관광(민북관광) 코스에 캠프 그리브스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민북관광은 임진각에서 제3땅굴~도라산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직판장~박물관을 거쳐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A코스과 임진각~제3땅굴~도라산전망대~해마루촌~허준묘~임진각 B코스 등 2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캠프 그리브스는 체류형 관광만 가능했지만 민북관광 코스에 포함되면 당일 코스로도 관광할 수 있다"면서 "민북관광 이용객이 많은만큼 캠프 그리브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북지역 안보관광에 내국인 29만8천193명, 외국인 30만6천47명 등

총 60만4천24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한편, 캠프 그리브스는 240명이 숙박 가능한 유스호스텔, 강당,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달 말에는 태양의 후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막사 체험, 군복입기, 군번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2014년 5천570명, 지난해 1만1천99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조윤성기자

22.7 X 12.1 cm